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신기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양평-20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7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7,2m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564-2
37° 24' 50.44" N
127° 44' 40.69" E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인 보호수(양평-20) 은행나무는 창촌마을의 인가와 개울 옆에서 자라고 있다. 쌍학2리 길가와 마을회관 앞의 공터에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7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1m 정도에서 7~9개가 사방으로 갈라져 옆으로 넓게 퍼졌다. 갈라진 줄기는 다시 작은 가지를 내었고, 무성하게 잎을 달아 풍성하게 보인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가지는 지지대로 받치고 있지만 지지대를 받치기 전에는 지면에 닿았다. 1998년 태풍 때에 가지가 찢기면서 한 쪽으로 치우친 모양이다. 말라 죽은 줄기의 끝 부분은 자른 상태이며, 밑동 부근의 맹아지에서 잎이 많이 나와 달려 있다. 눈높이에서도 성숙한 은행을 볼 수 있다. 생육상태는 중간 정도이다. 은행나무는 이천에서 이주해 온 박사문이라는 사람이 심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효자와 관련이 있다. 500여 년 전에 방영환이라는 효자가 있었다. 그는 80세 된 모친이 갑자기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동네 의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게 되자 매일같이 이 은행나무 밑에서 모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가 10여 년간이나 오랫동안 정화수를 올리며 기도하여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묘 앞에 움막을 짓고 7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효자나무' 또는 '효목孝木'이라 이름하고 있으며, 젊은이들과 자식들에게 효행을 가르치는 표본으로 삼고 있다. 양동면 단석리 양동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효열각은 이 은행나무에 10여 년을 빌어 어머니 눈을 뜨게 한 방영환의 효행을 기록하여 기리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은행나무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정자를 단장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이면서 수호목이다.